

레메디 (IPO 예정기업)

Analyst 하태기 | 에스텍/헬스케어 스톡캡

02-3779-3513, teagi.ha@sangsaninib.com

휴대용 X선 장비에서 경쟁력이 있다

Not Rated

목표주가

종가(26.06.19)

상승여력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더 많은 리포트 찾아보기

휴대용 X선 발생장치에서 강점, 수출시장 개척 중

동사는 저선량·소형화 X선 발생 및 제어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여 의료용 휴대용 X선 촬영장치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 동사는 핵심 부품에 대한 원천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설계·제조·공급할 수 있는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주요 사업은 의료용 사업과 치과용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비파괴검사(NDT) 및 부품 사업 등, 향후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8.8% 증가한 146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이었다. 그런데 2026년 연결기준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2.5% 증가한 94억원, 영업이익 33억원을 기록하여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기준 수출 비율은 83.6%이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56.4%이다.

핵심 경쟁력은 독자적인 X선 튜브, 에미터 생산 기술

동사는 2가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X선을 발생시키는 핵심 부품인 튜브(X-ray Tube)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기존 글라스(Glass) 기반 튜브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비의 소형화를 구현하기 위해 세라믹 기반 튜브 설계/제작 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세라믹 X선 튜브 'RMT08'은 세계 최초로 CE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후 의료용 제품인 'RMT12', 'RMT18', 'RMT23'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비파괴검사(NDT)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출력/내구성 튜브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초소형 X선 튜브 구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저선량, 고효율 전자 발생기 에미터(Emitter)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관련 특허를 통해 보호되고 있으며, 동사의 저선량/소형화 X선 플랫폼 기술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은 의료용 장비와 치과용 장비에서 발생 중

글로벌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시장은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질환 증가, 영상진단 기술 발전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 중이다. 동사의 투자설명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460억 달러(66.7조원)에서 2034년 약 758억 달러(109조원)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장조사기관 Global Market Insights 및 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글로벌 포터블 X-ray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80억 달러(약 11조원), 2034년에는 약 140억 달러(20.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화 사회 진입, 만성질환 환자 증가, 원격/재택 의료 확산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힘입어, 포터블 X-ray 장비는 향후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현재 매출액은 대부분 의료용부문과 치과용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의료용 장비로서 2025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12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26년 1분기에는 의료용 장비 매출액이 8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인도향 정부입찰 부문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필리핀 등 정부 입찰이 향후에도 증가할 전망이어서 매출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기준 동 부문 매출 중에서 제품은 84억원, 상품 43억원이다. 의료용으로 휴대용 X선 장비를 중심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력 제품인 KA6는 흉부 촬영에 특화된 휴대형 X선 장비이며, 병실, 응급현장, 이동검진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KA6 및 KA6 패키지는 현재 전 세계 34개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중저가 민간 시장과 공공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는 **남아시아와 중동/북아프리카 (MENA)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 중인 시장으로, 대리점 판매를 통한 매출과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별 매출 비중은 인도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비중이 높다.

선진국 시장 비중은 아직 높지 않다. 다만 기존 KA6 판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성능 제품인 XCAM6과 차세대 모델인 XCAM10의 출시로 선진국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XCAM6는 기존 대비 다양한 신체 부위의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XCAM10은 기존 장비 대비 투과력 및 영상 선명도가 개선되었으며, 고출력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고성능 휴대용 X선 촬영장치이다.

둘째, 치과 휴대용 장비 매출이다. 치과용 제품 판매는 KA6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영업력의 분산에 따라 최근 2년간 매출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강 내 치아 및 치조골 구조를 신속하게 영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며 진료실 내 이동이 용이한 경량 구조이다. 2025년 치과용 매출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1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글로벌 X-ray NDT(비파괴검사) 시장은 전기차 배터리 품질 검사, 반도체 패키징 검사, 항공기 부품 검증 등 고정밀 산업 수요 증가로 2025년 약 16억 달러(2.3조원) 규모에서 2035년 약 29억 달러(4.2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동사는 LG에너지솔루션에 배터리 검사 장비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산업용 장비의 매출 기여도는 제한적이거나, 향후 전기차 배터리 및 첨단 제조업 분야의 검사 수요 확대에 따라 증장기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상 공모가는 17,800~20,700원

레메디는 현재 코스닥 상장을 진행 중이다. 수요 예측일은 2026년 6월 17~23일이며, 청약 예정일이 7월 1~2일이다. 상장 예정일은 2026년 7월 중이다.

상장 주관사가 추정한 공모 예정가는 17,800~20,700원이다. 총 공모 예정금액은 214억원~248억원이며,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257억원~1,579억원이다.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이 146억원, 영업이익 28억원에 불과했으나, 2026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94억원, 영업이익이 33억원, 당기 순이익이 30억원이다. 2026년 1분기 수준의 실적 흐름이 연중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동사의 기업가치는 주관사가 제시한 시가총액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 시장 상황이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어 시장의 수급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동사의 2026년 1분기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29억원이며 차입성 부채는 122억원이다. 만약 상장으로 2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재무상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또한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33억원을 감안하면 향후 재무구조는 더 안정적인 수준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3	2024	2025	2025년 1Q	2026년 1Q
의료용 (증감률)	46	116	127		87
제품	27	51	84		49
상품	19	65	43		38
치과용 (증감률)	20	17	16		3
제품	19	16	16		3
상품	0	1	0		0
기타 (증감률)	3	2	2		3
(증감률)		-33.3%	0.0%		
매출총계 (증감률)	69	134	146	39	94
(증감률)		94.2%	9.0%		142.5%
매출원가 (매출원가율)	31	57	60	23	40
(매출원가율)	44.9%	42.5%	41.1%	59.0%	42.6%
판관비 (판관비율)	62	68	58	18	20
(판관비율)	89.9%	50.7%	39.7%	46.2%	21.3%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3	9	28	-2	33
(영업이익률)	-33.3%	6.7%	19.2%		35.1%

자료: 레메디 IR자료

그림 1. KA6와 타사 제품 사양 비교

KA6 제품 타사 스펙 비교		레메디	M사(미국)	F사(일본)	비교
		 KA6			타사대비
영상의 질 평가기준	관전압(kv)	40-90	40-90	50-90	동일
	관전류량(mAs)	12	20	2.5	4.8배 높음
	초점크기(mm)	0.4	0.8	0.8	2배 좋음
편리성 평가기준	무게(kg)	2.4	7.4	3.5	1.45~3.1배 경량화
	예열 시간(sec)	5	60	120	12~20배 빠름
	배터리 완충시간(시간)	1.1	3~4	4.5	3~4배 빠름
	배터리 사용횟수(회)	270-290	150	100	2배 이상 사용 가능

타사 대비 소형-경량이면서, 높은 관전류 및 우수한 초점 크기를 가지며, 짧은 배터리 완충시간 및 사용자 편의성이 타사대비 우수함

자료: 레메디 IR자료

그림 2. KA6 사용분야

기존 병원 내 사용 → 정밀진단

- 중환자실
- 수술실
- 응급실
- 입원실
- 정형외과 외래
- 소아과 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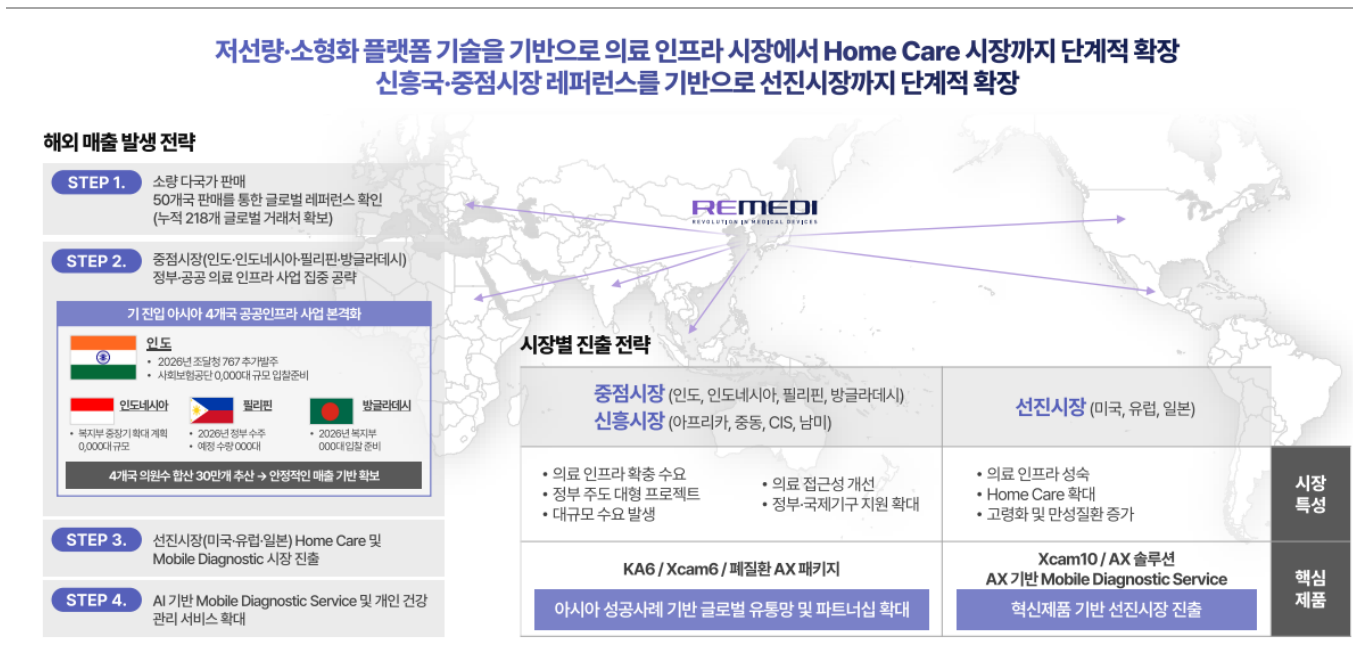


신규 사용 : 병원외부 →

- 구급차/응급헬기
- 의료봉사 현장
- 노약자 가정 간호
- 군부대
- 전쟁터
- 재난현장
- 스포츠 경기장 등

자료: 레메디 IR자료

그림 3. 의료분야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



자료: 레메디 IR자료

목표주가 추이 및 투자의견 변동내역

	일시	투자의견	목표가격	목표가격 대상 시 시점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IPO 예정 기업	2026-06-22	Not Rated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하태기)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구분	투자의견 기준 및 기간	투자등급	투자의견 비율	비고
산업 (Industry)	투자등급 3 단계 향후 12 개월 시장대비 상대수익률	Overweight (비중확대)	76.9%	시가총액 대비 비중확대	기업 (Company)	투자등급 3 단계 향후 12 개월 절대수익률	BUY	93.2%	절대수익률 15% 초과
		Neutral (중립)	23.1%	시가총액 수준 유지			HOLD	6.8%	절대수익률 +15% ~ -15%
		Underweight (비중축소)	0.0%	시가총액 대비 비중축소			SELL	0.0%	절대수익률 -15% 초과
		합계	100%				합계	100%	